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군집에 따른 성격 5요인과 정서표현양가성의 차이

설다연*·이동형**·김해인***

Ⅰ 알기 쉬운 개요

청소년기는 또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의 확장을 이루는 시기로, 이러한 또래 경험은 사회정서적, 도덕적, 행동적 발달 및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최근 비대면 활동 시간의 증가로 또래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홀로 있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사회적 상호작용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멀어지는 것을 사회적 위축이라고 하는데, 이는 수줍음, 비사교성, 회피, 절제 등의 구체적 동기에 따라 하위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보이는 사회적 동기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성격 특질과 정서 인식 및 표현의 측면에서 차이를 탐색해보고자, 군집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을 수줍음형, 비사교형, 절제형, 비위축형 군집으로 유형화하고 각 군집별 성격 5요인(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및 정서표현양가성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이 연구 결과는 청소년이 보이는 사회적 위축의 유형별 성격 및 정서 표현 관련 특성의 차이를 이해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위축에 차별적으로 접근하는데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seasnowy@gmail.com

**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신저자, leepsy@pusan.ac.kr

***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godls721@gmail.com

투 고 일 / 2023. 9. 4.

심 사 일 / 2023. 10. 13.

심사완료일 / 2023. 11. 7.

Ⅰ 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의 동기인 수줍음, 비사교성, 절제에 따라 나타나는 하위유형을 군집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각 군집에 따라 성격 5요인과 정서표현양가성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남녀 고등학생 82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집하고 군집분석, 다변량 및 단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동기에 따라 4개의 군집을 확인하였으며, 각각의 특성에 따라 군집 1은 '수줍음형 군집', 군집 2는 '비사교형 군집', 군집 3은 '절제형 군집', 군집 4는 '비위축 군집'으로 구분하여 명명하였다.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군집별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의 성격 5요인 차이를 확인한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군집별 정서표현양가성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수줍음형 군집, 절제형 군집, 비사교형 군집, 비위축 군집 순으로 높은 정서표현양가성을 보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에 따라 주요 성격 및 정서표현 관련 특성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위축에 따른 차별적 개입 전략 구상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 수줍음, 비사교성, 절제, 군집분석, 성격 5요인, 정서표현양가성

I. 서 론

사회적 연결과 상호작용을 통한 소속에 대한 욕구는 모든 인간에게 존재한다(Baumeister & Leary, 1995). 특히, 청소년기는 가족 환경이 중심이었던 이전 시기에 비해 사회적 상호작용의 확장을 이루는 시기로 또래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진다. 청소년들은 또래관계에서 사회적 수용과 소속감을 얻기 위해 노력하며, 이러한 또래 경험은 성장과 탐색의 기회를 확대하고, 정체성 형성 및 사회정서적, 도덕적, 행동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현수, 2020). 따라서 청소년기의 사회화 경험이 박탈되었을 때 청소년은 심리적 불안, 외로움, 우울 등 정서적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실시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1)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학교생활의 부재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청소년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핍, 특히 또래관계의 단절이 소외와 고립감을 증가시키고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다양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의 연구들도 사회환경적 변화나 또래집단으로부터 배제에 의한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은 다양한 부정적 결과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Coplan & Bowker, 2013).

그러나 이러한 비자발적인 고립과는 별도로 최근 비대면 활동 시간이 증가하면서 홀로 있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현상도 심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또래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2). 이처럼 개인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쾌하다고 인식하는 사회적 맥락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발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사회적 위축(social withdrawal)이라고 한다(Rubin, Coplan & Bowker, 2009). 개인이 사회적 상호작용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지고 자 하는 이유는 개인의 구체적인 동기에 따라 몇 가지 하위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Rubin et al., 2009). 대표적으로 Asendorpf(1990)는 사회적 위축을 사회적 접근 동기와 사회적 회피 동기의 조합에 의해 수줍음형, 비사회형, 회피형의 세 가지 하위유형으로 구별하여 개념화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수줍음(shyness) 형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접근 동기와 높은 회피 동기를 같이 가지고 있어 내적 갈등을 경험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은 동기가 높지만,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회피하고 싶은 동기도 강하여 막상 쉽게 어울리지 못한다. 두 번째 유형은 비사회(unsociability) 형으로, 낮은 사회적 접근 동기와 낮은 회피 동기를 가진 유형이다. 이들은 또래들과 어울리기를 원하지 않으며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것에 만족하지만,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만남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않고 참여하는 특징이 있다. 세 번째 회피(avoidance) 형은 낮은 사회적 접근 동기와 높은 회피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대체로 홀로 있고 싫어하고 또래와 어울리기를 원하지 않으므로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한편, 사회적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에 따른 세 가지 유형의 사회적 위축 개념이 북미를 중심으로 한 서구권에서 주로 연구되는 동안, 인도(Bowker & Raja, 2011), 중국(Liu, Coplan, Chen, Li, Ding & Zhou, 2014), 터키(Özdemir, Cheah & Coplan, 2015) 등 비서구권에서 수행된 사회적 위축 연구에서는 Asendorf(1990)가 제안한 하위유형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위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이는 사회적 위축의 개념화와 적응적 함의에 대한 논의가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기초한다. 대표적으로 터키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Özdemir 등(2015)은 수줍음과 비사교성에 이어 비서구권에서 사회적인 관계와 조화, 상호의존, 의무감 등을 중시하는 맥락적 특성을 고려한 ‘절제(regulated)’형을 타당한 하위유형으로 제안하였다. 이후 진행된 관련 국내 연구(공미정, 이동형, 2017; 이창우, 이동형, 2023)에서도 절제형이 기존의 유형과 구분되는 타당한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유형의 아동·청소년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순응적이고 양보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요컨대, 사회적 위축의 행동적 표현은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사회적 위축의 기저 동기는 수줍음, 비사교성, 회피, 절제를 포함하는 다양한 범위의 감정, 기질, 동기 및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는 다차원적 개념임을 알 수 있다(Coplan, Liu, Ooi, Chen & Ding, 2016).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은 새로운 만남이나 사회적 상황에서 스스로 철회하는 행동으로 인해 또래관계에서 부정적인 평가와 배제를 경험하기 쉽고 또래와의 적절한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Rubin & Burgess, 2001).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 장면에서의 어려움은 또래집단으로부터 더욱 배척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더 나아가 괴롭힘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인다(Bowker & Raja, 2011). 실제로 공격적인 아동·청소년보다 사회적으로 위축된 아동·청소년이 오히려 더 많은 괴롭힘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Boulton & Smith, 1994). 특히, 상호작용의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인해 스스로 격리시키는 경우, 상호작용 기회의 부족은 청소년에게 불안, 낮은 자존감, 우울 등의 내재화 문제와 또래의 거부,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과 같은 사회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결과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Rubin et al., 2009). 또한 이러한 어려움은 아동·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우울장애, 범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 등의 여러 심리적 문제의 핵심 증상과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plan et al., 2013).

이처럼 수줍음, 비사교성, 회피, 절제 등 다양한 사회적 위축 동기를 보이는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동기와 행동을 결정하는 개인차 및 환경 요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수준의 개인차 변인은 의심의 여지 없이 개인의 성격특질이다(Smith, Barstead & Rubin, 2017). 성격특질(personality traits)은 개인을 서로 구별하는 독특한 사고, 감정, 행동 패턴으로 정의되며, 비교적 안정적이고 일관된 특성을 가진다(Roberts, Wood & Caspi, 2008). 이러한 성격특질을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 중 하나는 성격 5요인 이론(Five-Factor Model)으로, 1981년 Goldberg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일관된 성격특질이 있음을 밝혀내고 이 다섯 가지 요인을 'Big Five'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노안영, 강신영, 2003). 이 다섯 가지 요인은 신경증(neuroticism), 외향성(extraversion),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우호성(agreeableness) 및 성실성(conscientiousness)을 포함한다(McCrae & Costa, 1999). 이후 Costa와 McCrae(1992)는 구조화된 설문을 통해 성격 5요인을 측정할 수 있도록 NEO-PI-R(NEO-Personality Inventory Revised)을 개발하였다. 신경증(N)은 정서적 고통에 대한 만성적 취약성 대 정서적 안정성을, 외향성(E)은 활기차고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 대 냉정하고 고독한 성향을, 개방성(O)은 호기심이 많고 비관습적 성향 대 전통적이고 실용주의적 성향을, 우호성(A)은 친절함과 신뢰성 대 경쟁적이고 거만함을, 성실성(C)은 체계적이고 신중한 성향 대 느긋하고 부주의한 성향의 정도를 나타낸다(Costa & McCrae, 1992).

선행연구(Smith et al., 2017)에 따르면, 이 5가지 요인 중에서 사회적 위축 및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장 잘 알려진 요인은 신경증과 성실성이다.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들의 성실성이 높거나 신경증이 낮을수록 불안과 우울 증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수준의 성실성은 사회적 위축과 우울 증상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실성이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들을 내재화 문제로부터 보호하는 요인임을 시사하였다. 또한, Hotard, McFatter, McWhirter와 Stegall(1989)은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신경증은 외향성이 낮은 개인의 부정적인 반응을 강화하므로 외향성이 낮고 신경증이 높은 사람들의 사회적 위축 수준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았다.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 중 수줍음형은 우울, 대인관계에서의 불안, 외로움과 같은 사회적 정서적 기능 측면에서 가장 어려움이 큰 집단이다(윤미설, 이동형, 2015; Coplan et al., 2013; Ding et al., 2023; Sette, Zava, Baumgartner, Laghi & Coplan, 2023). 초기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줍음은 높은 신경증, 낮은 외향성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Afshan, Askari & Manickam, 2015; Kwiatkowska & Rogoza, 2019), 이러한 결과는 수줍음이 강한 접근 동기와 강한 회피 동기가 공존하는 상태이므로 정서적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신경증과는 높은 상관을 보이며 사회적 접촉을 회피하고자 하므로 외향성과는 낮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성인진입기의 사회적 위축에 관한

연구에서 수줍음은 성실성과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McVarnock & Closson, 2022), 이 또한 수줍은 대학생들의 행동 특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결과다. 즉, 수줍은 대학생들은 사회적 두려움이 많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피하고자 직업 및 교육 관련 경험을 얻고 기회를 확대하는 데 소극적일 가능성이 크며, 이들이 30대 초반에 이르렀을 때 결국 교육 및 소득수준이 더 낮고, 자신의 교육이나 경력에 대해 후회하는 경향이 있으며, 안녕감 수준도 더 낮은 양상을 보인다(Nelson, Jorgensen & Clifford, 2021).

두 번째 하위유형인 비사교형은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는 성격적 특징을 의미하는 ‘홀로 있음에 대한 친화성(affinity for aloneness)’과 높은 상관을 보이며(Goossens, 2013), 일반적으로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홀로 있음, 즉 고독을 선호하므로 사회적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철회한다(Daly & Willoughby, 2020). 이러한 비사교형은 소속 문화권에 따라 적응적 함의가 상당히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Hofstede(1983, 1984)의 연구에서 개인주의 성향이 높게 나타난 미국, 캐나다, 서유럽 국가들과 집단주의적 성향이 높게 나타난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국가들을 비교한다면, 높은 개인주의 성향을 보이는 서구권 국가에서 수행된 연구에서 비사교성은 수줍음에 비해서는 그 부정적 영향의 정도는 덜 하지만 여전히 또래와의 친사회적 행동과 부적 상관을, 또래배제와는 정적 상관을 보이는 등 또래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oplan, Prakash, O'Neil & Armer, 2004). 또한, 우울, 외로움, 소외감, 사회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와도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 분명히 비사교성은 청소년들에게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Goossens, 2013). 특히, 비사교성의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비서구권 연구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증거가 있는데, 상호의존적 집단주의 문화를 가진 중국(Chen, Wang & Cao, 2011), 인도(Bowker et al., 2011), 터키(Özdemir et al., 2015)의 연구에 의하면 집단에서 의도적으로 떨어져 있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사교적 특성이 또래들에게 반집단적이고 비우호적으로 여겨져 사회정서적 어려움이나 부적응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의 성격 특질과 홀로 있음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 aloneness)의 관계를 연구한 Teppers 등(2013)은 높은 신경증, 경험에 대한 높은 개방성, 높은 성실성의 성격적 특성을 가진 청소년일수록 홀로 있음에 대한 높은 친화성을 보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선호하는 외향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홀로 있음에 대한 혐오감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신경증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평가에 더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홀로 있음에 대한 높은 친화성을 보이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개방성이 높은 청소년에게 홀로 있음은 개인적 관심사를 탐색하고 창의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음도 추론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성실성이 높은 청소년은 혼자 보내는 시간을 자기실현과 자기성찰의 기회로 삼을 수 있으므로 외로움에 대해 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수줍음형이나 비사교형과는 달리, 회피형과 절제형의 경우 서구권과 비서구권을 막론하고 성격 5요인과의 관련성을 다룬 실증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이 두 하위유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원인은 각기 차이가 있는데, 회피형의 경우 사회적 위축의 뚜렷한 하위유형으로 경험적, 실증적으로 확인이 되는지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있으며(Özdemir et al., 2015), 특히 회피형의 조작화 방식이 연구 간에 일관성이 부족한 것과 관련이 있다(윤미설, 이동형, 2015). 반면, 절제형은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이라는 점에서 흥미롭고, 또 국내에서도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이창우, 이동형, 2023)도 개발되었지만, 비서구권 연구를 통해 최근에야 확인된 유형이므로, 여러 성격 및 개인차 변인과의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가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현재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절제형 위축 청소년의 적응 결과는 다른 유형들과 비교할 때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즉, 절제형 위축 청소년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사회적 상호작용에 가장 잘 참여하는 경향이 있으며, 문제행동을 경험할 위험도 다른 유형의 사회적 위축 아동·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Özdemir et al., 2014). 국내 청소년 연구(공미정, 이동형, 2017)에서도 남학생의 절제형 위축은 괴롭힘 피해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또래의 친사회적 행동 증가와도 관련됨으로써 절제형 위축이 또래관계에서 보호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수줍음 및 비사교성과 성격 5요인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나 성격 5요인에 따른 홀로 있음에 대한 선호나 혐오의 양상의 차이를 검증한 연구결과(Teppers et al., 2013)에 기초할 때, 청소년의 성격특질이 사회적 위축의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따라서 하위유형에 따라 성격 5요인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한편,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 간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성격 5요인 같이 개인의 광범위한 성격특질 외에도 하위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구체적인 개인차 변인을 밝혀내는 연구도 필요하다. 이는 수줍음, 비사교성, 회피, 절제 등 특정한 사회적 위축 동기가 어떠한 심리내적 혹은 대인적 과정을 통해 부적응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검증가능한 모델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양한 동기를 가진 사회적 위축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적응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정서 인식 및 표현 관련 변인들의 역할을 탐색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대인관계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서표현에 대한 내적 갈등은 사회정서적 어려움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장정주, 김성모, 2008; 정은미, 2021). 이처럼 정서표현에 대한 내적 갈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정서표현양가성(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정서를 표현하려는 욕구는 있으나 이를 억압하거나 표현한 뒤 후회하고 갈등하는 일종의 정서 회피(King & Emmons, 1990)를 의미한다. 정서표현양가성은 특히 수줍음형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접근 및 회피 동기

사이의 빈번한 갈등과 관련지어 볼 수 있으며, 절제형 청소년들이 집단과의 조화를 추구하고 갈등을 막기 위해 자기주장을 과도하게 억제하는 특성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증연구에 따르면,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은 사람들은 정서적 경험을 언어화하여 표현하는 과정에서 방해받고(박하얀, 정윤경, 최해연, 2015) 대인관계에서 정서를 잘 표현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억제하게 되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mmons & Colby, 1995). 이들은 심리내적으로 긍정적 감정은 적게 경험하는 대신 부정적 감정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 사회적 적응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Gross & John, 2003). 정서의 표현과 억제 방식은 정서를 경험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최해연, 2008),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은 사람들은 수시로 내적 긴장 상태에 처하며 현재의 경험과 충분히 접촉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감정을 유발하는 문제들의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이를 해결하는 경험을 충분히 하지 못하여, 대인관계를 깊이 발전시키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Emmons & Colby, 1995; Mongrain & Vetteese, 2003). 실제로, 선행연구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은 외로움, 소외감 등과 같은 정서적 부적응 지표와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대인관계 만족도, 친밀감 등과 같은 긍정적 적응의 지표와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소영, 2009; 정지혜, 정남운, 2015).

정서표현양가성은 구체적으로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이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King & Emmons, 1990).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정서표현에 대해 갈등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의 자기방어적 동기를 반영하는 반면,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고려하거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이렇듯 개인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으며, 사회정서적 부적응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사회적 위축 청소년들은 하위유형에 따라, 사회적 동기가 다르므로, 이러한 동기가 충족 혹은 좌절될 때 동반되는 정서적 경험을 사회적으로 적절히 표현하거나 갈등하는 경향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상황에서 접근동기와 회피동기 간의 갈등을 경험하는 수줍음형 위축 청소년의 경우, 정서표현에 있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양가성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으며, 절제형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정서표현양가성을 경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을 직접 검증한 선행연구는 아직 없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동기(하위유형)에 개인의 일부 성격특질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지만,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에 따른 성격 5요인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확인한 연구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성격 5요인 같은 광범위한 특질 변인 외에도 사회적 위축이 사회정서적 적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인차 변인을 탐색하여 사회적 위축의 동기가 부적응적 결과

를 가져오는 기제를 설명하는 시도도 부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에 따라 청소년을 구분하기보다는 사회적 위축의 동기를 연속변인으로 측정하여 상관이나 회귀분석 결과를 보고하는 데 치중하거나, 하위유형에 따라 구분한 연구에서도 표본분포에 따라 임의의 절단점을 사용하여 특정 유형으로 분류함으로써 이러한 분석 방법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이창우, 이동형, 신지연, 2021). 따라서,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 연구에서 이러한 이론적, 방법론적 한계를 보완하고, 또한 사회적 위축의 다양한 동기가 부적응적 결과를 가져오는 기제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실증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에 따른 성격 5요인과 정서표현양가성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고, 하위유형 구분을 위한 방법론적 대안으로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사회적 위축의 동기에 따른 군집을 통계적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위축의 동기에 따라 군집을 유형화하고, 통계적으로 도출된 군집(즉,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에 따라 성격 5요인 및 정서표현양가성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보이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위축과 이와 관련되는 성격 특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며, 하위유형(군집)별 정서표현양가성의 차이를 분석하여, 향후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스스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멀어지는 청소년들의 하위유형을 이해하며 이에 따라 청소년 상담장면에서 차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는 데에도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군집유형은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군집에 따른 성격 5요인의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군집에 따른 정서표현양가성의 차이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B광역시 소재의 3개 고등학교 1~2학년 8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담임교사가 연구의 목적, 비밀보장 및 설문 작성 시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학생들의 동의를 얻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담임교사의 감독하에 학급 단위로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응답 시간은 15~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수집된 자료에서 불성

실하게 응답한 24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823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 50.5%(416명), 여학생 49.5%(407명)이었으며, 학년별 분포는 1학년 46.2%(380명), 2학년 53.8%(443명)로 집계되어 고른 분포를 보였다.

2. 측정도구

1) 사회적 위축의 동기

사회적 위축의 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창우와 이동형(2023)이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용 사회적 선호 척도 확장판(K-SPS-E)의 일부 척도를 사용하였다. K-SPS-E는 사회적 위축과 구분하기 위한 사회적 고립(5문항)과 사회적 위축의 동기 중 수줍음(6문항), 비사교성(5문항), 회피(4문항), 절제(6문항)의 4가지 동기를 측정하도록 5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회적 고립과 측정방식에 대해 아직 논란이 많은 회피를 제외하고, 수줍음(6문항), 비사교성(5문항), 절제(6문항)를 측정하는 총 17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각 척도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사회적 위축 동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창우와 이동형(2023)의 연구에서 측정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수줍음 .85, 비사교성 .82, 절제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87, .81, .82로 나타났다.

2) 성격 5요인

성격 5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양숙(2015)이 사용한 척도인 Goldberg(1999)의 IPIP (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 문항을 토대로 청소년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IPIP는 성격의 요인별로 각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성격 5요인 전체 5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척도를 사용하여 성격 5요인을 측정한 국내 연구들에서는 IPIP가 문항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각 요인의 내적합치도가 .70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도구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한양숙, 2015). IPIP는 신경증(10문항), 외향성(10문항), 개방성(10문항), 친화성(10문항), 성실성(10문항)의 5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성격 특질이 잘 발달된 것을 의미한다. 한양숙(2015)의 연구에서 요인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신경증 .83, 외향성 .84, 개방성 .82, 친화성 .83, 성실성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84, .86, .81, .85, .81로 나타났다.

3) 정서표현양가성

정서표현양가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최해연과 민경환(2007)이 번안한 한국판 정서 표현 양가성 척도(AEQ-K)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한 정서 표현 갈등 질문 척도(AEQ)를 타당화한 척도로 자기방어적 양가성(13문항)과 관계관여적 양가성(8문항)을 측정하는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였으며, 문항별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를 표현할 때 갈등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해연과 민경환(2007)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0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5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사하기 위해 측정 척도별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둘째, 변인들의 기술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피어슨 적률 상관분석을 통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셋째,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군집)을 탐색하기 위해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는 Ward 방법을 사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군집화 일정표, 덴드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군집 수를 정하였다. 2단계에서는 K-means 방법을 사용하여 비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분류된 군집 유형별 성격 5요인 및 정서표현양가성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변량 분산분석(MANOVA),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Scheffé 및 Games-Howell 방법으로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사회적 위축의 기저 동기인 수줍음, 비사교성, 절제와 신경증,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친화성 및 성실성의 성격 5요인, 정서표현양가성 간의 관련성을 측정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었다. 전반적으로 모든 변인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 변인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위축의 동기 중 수줍음은 성격 5요인 중 신경증($r=.37, p<.01$)과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나 외향성($r=-.53, p<.01$), 경험에 대한 개방성($r=-.25, p<.01$), 친화성($r=-.23, p<.01$), 성실성($r=-.30, p<.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정서표현양가성($r=.51, p<.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비사교성은 성격 5요인 중 신경증($r=.26, p<.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외향성($r=-.44, p<.01$), 경험에 대한 개방성($r=-.12, p<.01$), 친화성($r=-.36, p<.01$), 성실성($r=-.25, p<.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정서표현양가성($r=.28, p<.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절제는 성격 5요인 중 신경증($r=.24, p<.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외향성($r=-.33, p<.01$), 경험에 대한 개방성($r=-.15, p<.01$), 친화성($r=-.07, p<.05$), 성실성($r=-.14, p<.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정서표현양가성($r=.51, p<.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1-1	1-2	1-3	2-1	2-2	2-3	2-4	2-5	3
1-1	1								
1-2	.54**	1							
1-3	.49**	.24**	1						
2-1	.37**	.26**	.24**	1					
2-2	-.53**	-.44**	-.33**	-.34**	1				
2-3	-.25**	-.12**	-.15**	-.20**	.51**	1			
2-4	-.23**	-.36**	-.07*	-.27**	.60**	.54**	1		
2-5	-.30**	-.25**	-.14**	-.36**	.49**	.49**	.60**	1	
3	.51**	.28**	.51**	.47**	-.42**	-.20**	-.17**	-.26**	1
평균	2.01	1.89	2.69	2.80	3.41	3.43	3.67	3.38	2.80
표준편차	.83	.73	.76	.73	.71	.60	.63	.64	.84
왜도	.76	.89	-.01	.51	-.26	.36	-.11	.26	-.15
첨도	.07	.75	-.11	-.21	.25	.14	-.22	.05	-.33

주. 1-1. 수줍음, 1-2. 비사교성, 1-3. 절제, 2-1. 신경증, 2-2. 외향성, 2-3. 경험에 대한 개방성, 2-4. 친화성, 2-5. 성실성, 3. 정서표현양가성

* $p<.05$, ** $p<.01$

2. 군집 분류와 군집별 특성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의 기저 동기 중 수줍음, 비사교성, 절제에 따라 나타나는 군집별 차이를 탐색하기 위해 각 기저 동기 값을 표준점수로 변환한 뒤 2단계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Ward 방법을 사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화 일정표의 계수 변화 및 덴드로그램을 고려하였을 때 4개의 군집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단계는 비위계적 군집분석 방법인 K-means 분석을 통해 군집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군집 1에 144명(17.5%), 군집 2에 167명(20.3%), 군집 3에 270명(32.8%), 군집 4에 242명(29.4%)으로 분류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각 군집별 중심점(centroid)과 각 군집별 분포 현황은 표 2에 제시하였으며, 각 군집별 특성(프로필)은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에 따른 최종 군집별 중심점

	군집 1 (n=144)	군집 2 (n=167)	군집 3 (n=270)	군집 4 (n=242)
수줍음	1.50	.07	-.30	-.91
비사교성	1.29	.68	-.39	-.80
절제	.93	-.50	.63	-.91

주. 위의 점수는 표준화된 점수임($M=0$, $SD=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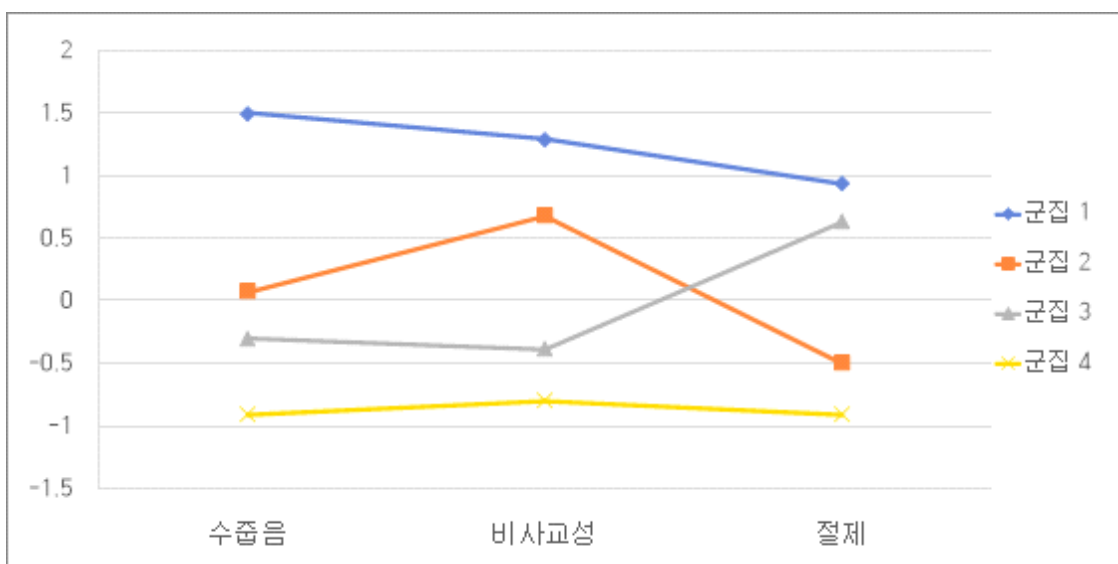


그림 1.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군집 프로파일(N =823)

군집 1은 수줍음, 비사교성, 절제가 전반적으로 높은 집단으로 그 중 수줍음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므로 ‘수줍음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비사교성이 높고 수줍음은 평균 수준, 절제는 낮게 나타나 ‘비사교형’으로, 군집 3은 절제는 높으나 수줍음과 비사교성이 낮게 나타나 ‘절제형’으로, 군집 4는 수줍음, 비사교성, 절제형 위축이 모두 낮게 나타나 ‘비위축’으로 명명하였다.

3. 군집에 따른 성격 5요인의 차이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군집에 따라 성격 5요인, 즉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4개의 군집을 독립변인으로, 성격의 5가지 요인인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들의 관측 공분산행렬에 대한 Box' M값의 동질성 검증 결과, 집단이 종속변수의 공분산 행렬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만족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F=2.502$, $p<.001$), 다변량 통계량으로 Pillai's Trace 값을 확인하였다(양병화, 2006). 그 결과 사회적 위축 군집유형별 4집단과 성격의 5가지 하위요인 전체 분석모형에서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Pillai's Trace = .324, $F(3, 819)=19.792$, $p<.001$]. 이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위축의 군집유형에 따라 성격 5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군집유형에 따라 성격 5요인의 차이가 전반적으로 유의하므로, 각 성격요인별로 군집 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단변량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고, 유의한 경우 특정 집단 간의 평균 차이 비교를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한편, 다변량 분석을 위한 가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Levene 검정을 실시한 결과, 성격의 5요인 중 친화성을 제외한 4가지 요인들이 등분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친화성의 차이는 Scheffé 검증으로, 그 외의 변인들은 Games-Howell 방법을 통해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군집유형별 성격 5요인의 차이에 대한 단변량 분산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군집별 성격 5요인의 차이 검증

(N=823)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F	Post-Test
	수줍음 (n=144)		비사교성 (n=167)		절제 (n=270)		비위축 (n=242)			
	M	SD	M	SD	M	SD	M	SD		
신경증	.54	.81	.14	.98	.01	.94	-.43	.99	33.82***	1>2,3>4
외향성	-.93	1.00	-.18	.80	.05	.78	.62	.89	100.43***	1<2<3<4
개방성	-.34	.92	-.09	.92	-.02	.89	.29	1.14	13.09***	1<3<4 2<4
친화성	-.51	.89	-.25	.97	.11	.91	.35	1.0	30.29***	1,2<3<4
성실성	-.39	.82	-.23	.92	-.02	.90	.40	1.1	25.27***	1<3<4 2<4

주: 위의 점수는 표준화된 점수임(M=0, SD=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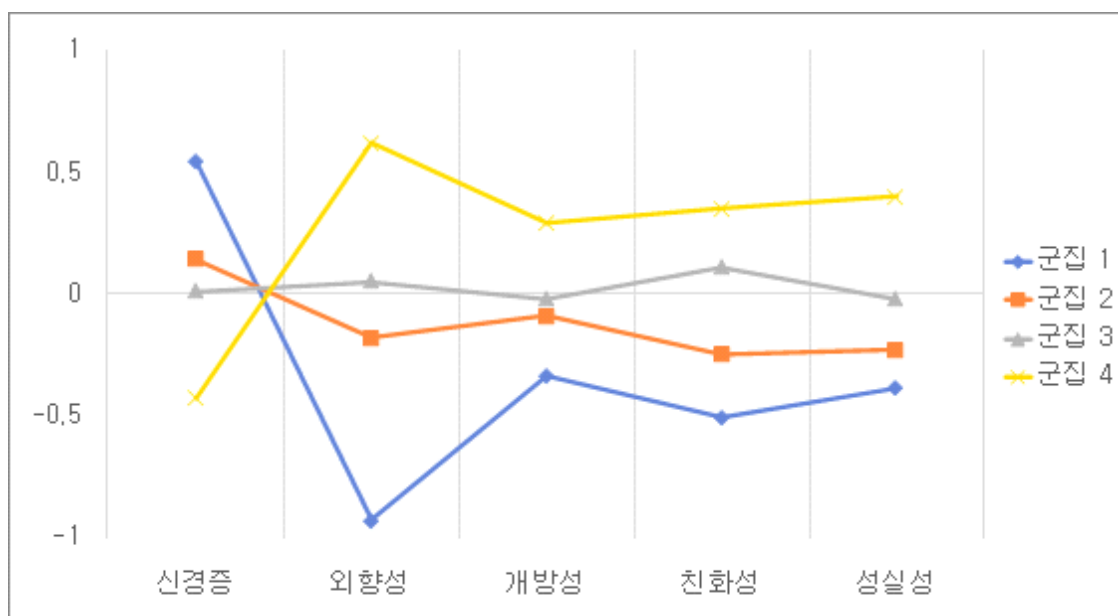
*** $p < .001$ 

그림 2. 군집에 따른 성격 5요인의 차이

각 군집별 성격 5요인 특질의 차이를 그림 2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신경증'에서는 수줍음형 군집(군집 1)이 다른 군집유형에 비해 통계적으로 높았으며, 비위축 군집(군집 4)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사교형 군집(군집 2)과 절제형 군집(군집 3)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향성’은 비위축 군집(군집 4), 절제형 군집(군집 3), 비사교형 군집(군집 2), 수줍음형 군집(군집 1) 순으로 높았으며, ‘개방성’은 비위축 군집(군집 4)이 가장 높게, 수줍음형 군집(군집 1)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친화성’은 비위축 군집(군집 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줍음형 군집(군집 1), 비사교형 군집(군집 2)이 낮았으며, ‘성실성’은 비위축 군집(군집 4)이 가장 높고, 수줍음형 군집(군집 1)이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군집에 따른 정서표현양가성의 차이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군집유형에 따라 정서표현양가성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고 Scheffé 검정으로 평균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는데, 사회적 위축 군집유형에 따른 정서표현양가성 평균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95.38, p<.001$), Scheffé 검증을 실시한 결과, 수줍음형 군집(군집 1)이 통계적으로 가장 높은 정서표현양가성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절제형 군집(군집 3), 비사교형 군집(군집 2), 비위축 군집(군집 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네 개의 사회적 위축 군집유형 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4
군집별 정서표현양가성의 차이 검증

(N=823)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F	Post-Test
	수줍음 (n=144)		비사교성 (n=167)		절제 (n=270)		비위축 (n=242)			
	M	SD	M	SD	M	SD	M	SD		
정서표현 양가성	.73	.93	-.03	.83	.26	.82	-.70	.88	95.38***	1>3>2>4

주. 위의 점수는 표준화된 점수임($M=0, SD=1$)

*** $p < .001$

IV. 논 의

최근 사회적으로 위축된 아동·청소년들이 그 동기에 따라 몇 가지 하위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지만, 사회적 위축의 동기와 성격 5요인 간의 관련성이나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이 부적응적 결과를 가져오는 구체적인 기제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남녀 고등학생 총 823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위축 등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설문자료를 수집한 후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의 동기에 따른 군집을 도출하고, 이러한 군집(유형)에 따라 성격 5요인과 정서표현양가성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4개의 군집이 확인되었다. 각 군집에서 가장 뚜렷한 사회적 위축 동기를 반영하여 각각 ‘수줍음형 군집(144명, 17.5%)’, ‘비사교형 군집(167명, 20.3%)’, ‘절제형 군집(270명, 32.8%)’, ‘비위축 군집(242명, 29.4%)’으로 명명하였다. 전체 청소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흥미롭게도 절제형이었다. 이 유형은 사회적 관계에서의 상호의존과 조화를 특히 중요시하는 비서구권(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문화권)에서 주로 연구되기 시작한 유형으로,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절제형 위축의 특징을 보이는 청소년이 상당히 많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로우며, 국내의 다른 청소년 표본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지 후속 연구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비위축 유형은 29.4%로, 미국의 30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Nelson, 2013)에서 비위축 유형이 61.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과 비교해 보면 꽤 차이가 있지만,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중국의 성인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Xu et al., 2022)에서는 34.7%가 비위축으로 분류되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위축의 유형별 분포 양상이 연령대나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도 시사하지만, 연구에 따라 분포의 차이가 큰 원인 중 하나는 측정 도구나 하위유형 분류 기준/방법이 아직 통일되어 있지 않은 점과도 관련되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선행연구에서는 절제형 위축이 최근 등장한 개념이다 보니 하위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유형별 분포를 본 연구결과와 직접 비교하여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분류 방법을 일치시키고, 다양한 문화권과 연령대에서 하위유형별 분포를 비교하는 연구가 후속된다면,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대표적인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인 수줍음형과 비사교형의 경우, 기존의 연구들(Nelson, 2013; Xu et al., 2022)에서 두 유형을 합쳐 약 25%~45% 정도의 분포를 보인 점을 볼 때, 본 연구 결과(38%)와 대체로 유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두 유형의 사회적 위축이 서구권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비서구권 문화에서도 비교적 안정되게 출현되는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임을 보여준다.

둘째,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군집에 따라 성격 5요인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군집 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수줍음형 군집(군집 1)과 비위축 군집(군집 4)의 차이가 분명하였다. 4개의 도출된 군집 별로 성격 5요인의 차이를 차례로 살펴보면, 우선 수줍음형 군집(군집 1)은 다른 군집들과 비교할 때 통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신경증과 가장 낮은 수준의 외향성을 보였으며,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에서도 일관되게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이는 수줍음과 높은 신경증 및 낮은 외향성 간의 관련성을 보고한 기존 연구들(Afshan et al., 2015; Kwiatkowska & Rogoza, 2019; Schmidt, & Miskovic, 2013)과 맥을 같이 하며, 수줍음과 성실성 간의 부적 상관을 보고한 연구(McVarnock & Closson, 2022)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신경증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유발하고 다양한 정신병리의 발현과 관련성이 높으며(장은지, 최은실, 2017), 특히 신경증이 높으면서 동시에 외향성이 낮은 경우 사회적 위축 수준이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Hotard et al., 1989)도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수줍음형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신경증과 낮은 외향성뿐 아니라, 성실성, 개방성, 친화성도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는 수줍음형 청소년들이 내재화 문제나 또래관계 문제 등 광범위한 사회정서적 적응문제에 가장 취약한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 집단임을 시사한다(표 3 참조).

한편, 비사교형 군집(군집 2)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신경증, 낮은 외향성, 낮은 개방성, 낮은 친화성, 낮은 성실성을 보였는데, 신경증은 수줍음형 보다는 낮았지만, 비위축 집단보다는 유의하게 높았고, 특히 친화성과 외향성은 수줍음형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편이었으며, 개방성이나 성실성도 비위축 군집에 비해서는 유의하게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비사교성과 관련된 개념인 홀로 있음에 대해 친화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높은 신경증, 낮은 외향성, 높은 개방성, 높은 성실성의 성격적 특성을 보인다고 한 연구(Teppers et al., 2013)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비사교형 청소년들이 보이는 높은 신경증과 낮은 외향성은 수줍음형 만큼은 심각하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다양한 사회정서적 어려움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Goossens, 2013)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개방성과 성실성의 요인은 Teppers 등(2013)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홀로 있음에 대한 친화성이 비사교성과 관련되어있지만, 이 두 개념 사이에 핵심적 차이가 있기 때문인 듯하다. 즉, 홀로 있음에 대한 친화성은 비병리적 형태의 비사교성이 청소년기 이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개념화되고 있으므로(Goossens, 2013),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비사교형 군집의 청소년들 중 일부만이 홀로 있음에 대한 친화성과 함께 높은 개방성, 성실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낮은 친화성을 보이는 군집 2의 청소년들은 공감과 배려가 부족하거나 타인에게

무관심하며 자기주장적인 것으로 지각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음으로, 절제형 군집(군집 3)은 친화성이 평균보다 다소 높게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네 요인이 모두 평균값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평균과 가까운 값이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 참조). 다른 군집과 비교하면, 이 군집은 신경증 요인에서는 수줍음형 보다는 낮고, 비사교형과는 비슷한 수준이며, 비위축 군집에 비해서는 높았다. 그 외의 다른 4요인에서는 수줍음형 보다는 일관되게 높고, 비위축 군집에 비해서는 일관되게 낮은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절제형 군집의 성격 5요인 프로파일은 절제형 위축이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 중 기능적 측면에서 가장 긍정적이라는 국외(Xu et al., 2007; Xu et al., 2014)와 국내(공미정, 이동형, 2017)의 연구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의 욕구에 반할지라도 사회적 조화를 고려하여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스스로 절제하거나 철회한다는 점에서 다른 하위유형과 차이가 있다. 이 군집은 5요인 중 친화성이 유일하게 약간 상승되어 있는데, 이러한 특질이 긍정적 대인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성격적 자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절제형 위축 청소년들은 쉽게 타인의 의견에 동조하고 자신의 의견을 틀린 것으로 생각하는 양상을 보일 수 있으며, 또래 행동을 모방하려는 경향이 높으므로(Özdemir et al., 2015), 이러한 수동성은 또래관계에서 지위 획득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끝으로, 비위축 군집(군집 4)은 가장 낮은 신경증, 높은 외향성, 높은 개방성, 높은 친화성, 높은 성실성으로 나타나, 대체로 수줍음 군집(군집 1)과 가장 대조되는 양상을 보였다. 비위축 청소년들은 모든 다른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 군집에 비해 신경증 요인이 유의하게 낮았을 뿐 아니라, 외향성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도 다른 세 군집에 비해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비위축 집단 역시 다른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 집단들과는 성격 5요인 측면에서 명확히 구분되는 이질적인 집단임을 잘 보여준다. 요컨대, 통계적으로 도출된 군집에 따른 성격 5요인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이러한 군집이 성격 5요인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독특한 프로파일을 가지는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임을 뒷받침해 준다.

셋째,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군집에 따라 정서표현양가성에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4 참조). 구체적으로, 수줍음형 군집(군집 1)이 정서를 표현할 때 다른 모든 군집에 비해서 가장 높은 양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상황에서 접근하고 싶은 동기와 회피하고 싶은 동기를 동시에 강하게 가지고 있는 수줍음형의 특징이 정서의 표현에서도 내적 갈등 혹은 양가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절제형 군집(군집 3) 또한 비사교형이나 비위축 군집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정서표현양가성을 보였는데, 이처럼 정서표현양가성이 비교적 높은 것은 이 유형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욕구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의무감으로 인해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은 억누르고 갈등을 피하고 순응적으로 행동하는 방식을 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사교성 군집(군집 2)은 평균보다 낮은 정서표현양가성을 보여 사회적 상황에서 정서를 표현할 때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을 시사하였다. 이는 비사교성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접근동기와 회피동기가 모두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사회적 상황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정서적 갈등을 크게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비사교성이 내재화 문제와 관련이 없거나 관련이 있더라도 수줍음에 비해 상관이 훨씬 낮다는 연구결과(Nelson, 2013; Bowker & Raja, 2011)와 일치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비위축 군집(군집 4)은 사회적 위축 양상을 보이지 않는 군집으로 해당 청소년들이 대인관계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며 현재의 경험과 충분히 접촉하여 긍정적인 또래관계가 가능함을 짐작할 수 있다. 높은 정서표현양가성을 보이는 수줍음형 군집(군집 1)과 절제형 군집(군집 3)의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서를 억제하거나 제대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회적 상황에서 갈등을 유발하거나 또래와 더욱 멀어지게 되므로, 이는 결국 사회적 위축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수줍음형과 절제형 위축 청소년들이 이처럼 정서표현양가성을 높게 경험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이 외로움, 우울 등 심리적 부적응 지표와 높은 상관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정지혜, 정남운, 2015; Barr et al., 2008)와 함께 수줍음이나 절제 같은 사회적 위축의 동기가 정서표현양가성을 매개로 부적응에 이르게 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사회적 위축이 수줍음, 비사교, 절제 등 기저의 동기 측면에서 “다양한 얼굴”(Coplan & Bowker, 2021)을 가진 사회적 행동으로, 성격 5요인 같은 광범위한 성격 특질 및 정서표현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므로, 하위유형에 따라 그 형태를 구분하여 적응적·기능적 함의를 폭넓게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적 위축 관련 연구들이 해외뿐 아니라 국내 학계에서도 최근 늘고 있지만, 국내 학계의 경우 대부분 사회적 위축을 여전히 단일 차원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조작화하여 연구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창우, 이동형, 2023).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연구자들이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위축에 주목하고, 하위유형에 따른 적응적 결과의 다양성에 주목하는 등 보다 정교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는 국내 남녀 고등학생 샘플에서 적어도 세 가지 형태의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군집)이 사회적 위축 동기에 따라 실증적으로 확인가능함을 보여주었으며, 각 유형의 분포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국내 고등학생 중에서 절제형 사회적 위축이 가장 많은 비율(약 3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흥미로운

결과로, 한국의 문화권 내에서 수줍음과 비사교성 같이 다양한 문화권에서 이미 잘 확인된 사회적 위축의 전형적인 형태를 연구하는 것 외에도 집단주의 문화의 독특성을 잘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위축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실천적 관점에서 볼 때, 통계적으로 도출된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에 따라 성격 5요인의 프로파일 및 정서표현양가성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 본 연구의 결과는 하위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청소년 교육 및 개입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즉,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을 청소년 전문가로서 상담, 개입하거나 교육할 때, 개인의 일반적 성격 특질을 파악하는 노력과 함께 사회적 위축의 동기를 함께 평가함으로써 학생 혹은 내담자의 사회적 욕구와 필요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어서 청소년의 하위유형에 맞는 적절한 사회성 개입을 제공하여 정서나 사회적 기능 면에서 부적응을 예방하고 보다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수줍음형 청소년의 경우 높은 신경증, 낮은 외향성, 높은 정서표현양가성의 특징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을 상담하거나 교육할 때는 공감적이며 수용적인 태도를 통해 먼저 불안감을 낮추어 부정적 정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정서를 솔직히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 내적 긴장상태를 줄이고 또래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긍정적 경험을 증가시키는 데 주력하여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군집을 탐색하기 위하여 남녀 고등학생 표본을 확보하고, 성별과 학년(고 1, 2학년)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도록 표집하였으나, 영남권의 한 광역시에 소재한 3개의 고등학교에 한정되어 지역적으로 편중된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요인이 본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을 제한하므로, 다양한 지역과 연령 표본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를 진행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 위축의 특정 하위유형(즉, 절제형) 분포가 다른 표본에서도 얼마나 일관되게 나타나는지는 후속 연구에서 주목해 볼 일이다. 둘째, 본 연구는 사회적 위축에 관한 국내의 연구 중에서는 처음으로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을 통계적으로 도출하였지만, 일부 군집의 안정성은 후속 연구에서 추가 탐색 및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군집 1의 경우, 수줍음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이 군집을 ‘수줍음형 군집’으로 명명하였으나, 이 군집은 수줍음 외에도 비사교성, 절제 또한 다른 군집보다 더 높은 양상을 보였다. 즉, 이 군집은 수줍음의 동기가 가장 높지만, 다른 동기들도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공존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해외연구들은 여러 동기가 동시에 상승하는 유형을 ‘혼합형’으로 명명하기도 하였고(Nelson et al., 2021), 수줍음과 비사교성만 동시에 상승하는 경우 ‘회피형’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러한 유형이 다양한 표본에서 얼마나 안정되게 나타나는지는 아직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이론적으로 가장 가까운 수줍음형으로 명명하였다. 따라서, 지역과 연령대 등이 다양한 표본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양상이 다른 표본에서도 흔히 나타나는지 후속연구들을 통해 확인한 후 가장 적절한 군집명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에 따른 성격 5요인의 차이를 포괄적으로 탐색한 연구라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였지만, 간편형 검사지를 사용함으로써 성격 5요인의 하위요인들(예를 들면, 신경증의 하위요인으로서 불안, 적대감, 우울, 소심증, 충동성 등)의 차이에 대한 분석은 추가로 진행하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 이 점을 고려한다면,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에 따른 성격 5요인별 성격적 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북미 등 주로 서구권 국가에서 시작하여 최근 몇몇 비서구권 국가로 확대되어 연구되고 있는 사회적 위축의 다양한 동기에 따른 하위유형 개념을 국내 고등학생 표본에게 적용하여 통계적으로 하위유형을 도출하고, 각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성격 5요인 및 정서표현 양가성의 차이를 처음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사회적 위축 연구 분야에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하였으며 집단주의 문화권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절제형을 처음으로 고려하여 하위유형을 도출하였고, 각 유형별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은 이 연구의 독특한 기여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사회적 위축 청소년들에 대한 청소년 연구자 및 현장 전문가들의 학술적, 실천적 관심을 제고하고 이들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소영 (2009). 정서표현갈등, 갈등해결전략이 대인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공미정, 이동형 (2017). 남녀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 및 지각된 학급풍토와 괴롭힘 피해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4(2), 209-234. doi:10.16983/kjsp.2017.14.2.209
- 김현수 (2020). **코로나로 아이들이 잃은 것들- 우리가 놓치고 있던 아이들 마음 보고서**. 서울: Denstory.
- 노안영, 강신영 (2003). **성격심리학**. 서울: 학지사.
- 박하얀, 정윤경, 최해연 (2015). 정서표현양가성의 발달과 이에 따른 정서표현성, 문제행동 및 심리적 안녕감: 아동·청소년·성인집단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3), 189-207.
- 양병화 (2006). **다변량 데이터 분석법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윤미설, 이동형 (2015).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에 따른 사회정서적 기능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22(9), 301-326.
- 이창우, 이동형 (2023). 한국판 청소년용 사회적 선호 척도의 확장과 교차 차당화. **한국청소년연구**, 34(1), 59-90. doi:10.14816/sky.2023.34.1.59
- 이창우, 이동형, 신지연 (2021). 남녀 고등학생의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에 따른 내재화 문제 및 안녕감의 차이. **청소년상담연구**, 29(2), 67-94. doi:10.35151/kyci.2021.29.2.004
- 장은지, 최은실 (2017). Big 5 성격요인에 따른 청소년 성격특성의 발달적 변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10), 307-321. doi:10.5392/JKCA.2017.17.10.307
- 장정주, 김정모 (2008). 정서적 지각, 표현 및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과 대인관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697-714.
- 정은미 (2021). 정서표현 양가성에 관한 연구 동향: 상담학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학술지를 중심으로**. **상담교육연구**, 4(1), 1-17.
- 정지혜, 정남운 (2015). 거절민감성과 외로움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지**, 23(2), 339-360. doi:10.35151/kyci.2015.23.2.016
- 최해연 (2008). 한국인에게는 억압이 적응적인가?: 억압 측정의 타당성 논의.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1), 197-216.
- 최해연, 민경환 (2007). 한국판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의 타당화 및 억제 개념들간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71-89. doi:10.21193/kjspp.2007.21.4.004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1).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 4, 1-12.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2).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 1, 1-22.
- 한양숙 (2015). **초등영재학생의 그릿(Grit), 그릿(Grit) 개별 요인, 성격 5요인의 관계**.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fshan, A., Askari, I., & Manickam, L. S. S. (2015). Shyness, self-construal, extraversion-introversion, neuroticism, and psychoticism: A cross-cultural comparison among college students. *Sage Open*, 5(2). doi:10.1177/2158244015587559
- Asendorpf, J. B. (1990). Beyond social withdrawal: Shyness, unsociability, and peer avoidance. *Human Development*, 33(4-5), 250-259. doi:10.1159/000276522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529. doi:10.1037/0033-2909.117.3.497
- Bayram Özdemir, S., Cheah, C. S., & Coplan, R. J. (2015). Conceptualization and Assessment of Multiple Forms of Social Withdrawal in Turkey. *Social Development*, 24(1), 142-165. doi:10.1111/sode.12088
- Boulton, M. J., & Smith, P. K. (1994). Bully/victim problems in middle school children: stability, self-perceived competence, peer acceptanc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2, 315-325. doi:10.1111/j.2044-835x.1994.tb00637.x
- Bowker, J. C., & Raja, R. (2011). Social withdrawal subtypes during early adolescence in India.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9, 201-212. doi:10.1007/s10802-010-9461-7
- Chen, X., Wang, L., & Cao, R. (2011). Shyness-sensitivity and unsociability in rural Chinese children: Relations with social, school,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82, 1531- 1543. doi:10.1111/j.1467-8624.2011.01616.x
- Coplan, R. J., & Bowker, J. C. (2013). All alone: Multiple perspectives on the study of solitude. *The handbook of solitude: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ocial isolation, social withdrawal, and being alone*, 1-13. doi:10.1002/9781118427378.ch1
- Coplan, R. J., & Bowker, J. C. (2021). Looking beyond social motivations: Considering novel perspectives on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Merrill-Palmer Quarterly*, 67(4), 390-415. doi:10.1353/mpq.2021.0020

- Coplan, R. J., Ooi, L. L., Xiao, B., & Rose-Krasnor, L. (2018). 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social withdrawal in early childhood: A first look at social avoidance. *Social Development, 27*(1), 125-139. doi:10.1111/sode.12258
- Coplan, R. J., Liu, J., Ooi, L. L., Chen, X., Li, D., & Ding, X. (2016). A person-oriented analysis of social withdrawal in Chinese children. *Social Development, 25*(4), 794-811. doi:10.1111/sode.12181
- Coplan, R. J., Prakash, K., O'Neil, K., & Armer, M. (2004). Do You "Want" to Play? Distinguishing Between Conflicted Shyness and Social Disinterest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40*(2), 244-258. doi:10.1037/0012-1649.40.2.244
- Coplan, R. J., Rose-Krasnor, L., Weeks, M., Kingsbury, A., Kingsbury, M., & Bullock, A. (2013). Alone is a crowd: social motivations, social withdrawal, and socioemotional functioning in later child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49*(5), 861-875. doi:10.1037/a0028861
- Costa, P. T., & McCrae, R. R. (1992). *Neo PI-R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Daly, O., & Willoughby, T. (2020). A longitudinal person-centered examination of affinity for aloneness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91*(6), 2001-2018. doi:10.1111/cdev.13411
- Ding, X., Zhang, W., Ooi, L. L., Coplan, R. J., Zhu, X., & Sang, B. (2023). Relations between social withdrawal subtypes and socio-emotional adjustment among Chinese children and early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33*(3), 774-785. doi:10.1111/jora.12837
- Emmons, R. A., & Colby, P. M. (1995). Emotional conflict and well-being: relation to perceived availability, daily utilization, and observer repor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5), 947-959. doi:10.1037/0022-3514.68.5.947
- Goldberg, L. R. (1999). A-broad-bandwidth, public-domain, personality inventory measuring the lower-level factors several five-factor model. *Personality Psychology in Europe, 7*(1), 7-28.
- Goossens, L. (2013). Affinity for Aloneness in Adolescence and Preference for Solitude in Childhood. In R. J. Coplan & J. C. Bowker (Eds.), *The Handbook of solitude:*

-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ocial isolation, social withdrawal, and being alone* (pp. 150-166). West Sussex, UK: Wiley Blackwell. doi:10.1002/9781118427378.ch9
- Gross, J. J., &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348-362. doi:10.1037/0022-3514.85.2.348
- Hofstede, G. (1984).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Sage.
- Hofstede, G. (1983). National cultures revisited. *Behavior Science Research*, 18(4), 285-305. doi:10.1177/106939718301800403
- Hotard, S. R., McFatter, R. M., McWhirter, R. M., & Stegall, M. E. (1989). Interactive effects of extraversion, neuroticism, and social relationships on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2), 321-331. doi:10.1037/0022-3514.57.2.321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864-877. doi:10.1037/0022-3514.58.5.864
- Kwiatkowska, M. M., & Rogoza, R. (2019). A modest proposal to link shyness and modesty: Investigating the rel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Big Five personality trai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9, 8-13. doi:10.1016/j.paid.2019.05.026
- Liu, J., Coplan, R. J., Chen, X., Li, D., Ding, X., & Zhou, Y. (2014). Unsociability and shyness in chinese children: Concurrent and predictive relations with indices of adjustment. *Social Development*, 23(1), 119-136. doi:10.1111/sode.12034
- McCrae, R. R., & Costa, P. T., Jr. (1999). A Five-Factor theory of personality. In L. A. Pervin & O. P. John (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pp. 139-153). Guilford Press.
- McVarnock, A. M., & Closson, L. M. (2022). Motivations for social withdrawal and academic adjustment in emerging adulthood.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40(2), 352-367. doi:10.1111/bjdp.12411
- Mongrain, M., & Vetteese, L. C. (2003).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 Implications for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4), 545-555. doi:10.1177/0146167202250924
- Nelson, L. J. (2013). Going it alone: Comparing subtypes of withdrawal on indices of adjustment and maladjustment in emerging adulthood. *Social Development*, 22(3), 522-538. doi:10.1111/j.1467-9507.2012.00671.x
- Nelson, L. J., Jorgensen, N. A., & Clifford, B. N. (2021). Shy and still struggling: Examining the relations between subtypes of social withdrawal and well-being in the 30s. *Social Development*, 30(2), 575-591. doi:10.1111/sode.12486
- Roberts, B. W., Wood, D., & Caspi, A. (2008).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traits in adulthood. In O. P. John, R. W. Robins, & L. A. Pervin (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pp. 375-398). The Guilford Press.
- Rubin, K. H., & Burgess, K. B. (2001). Social withdrawal and anxiety. *The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of anxiety*, (Pt III), 407-434. doi:10.1093/med:psych/9780195123630.003.0018
- Rubin, K. H., Coplan, R. J., & Bowker, J. C. (2009).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141-171. doi:10.1146/annurev.psych.60.110707.163642
- Schmidt, L. A., & Miskovic, V. (2013). Shyness and the electrical activity of the brain: On the interplay between theory and method. *The handbook of solitude: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ocial isolation, social withdrawal, and being alone*, 51-70. doi:10.1002/9781118427378.ch4
- Sette, S., Zava, F., Baumgartner, E., Laghi, F., & Coplan, R. J. (2023). Examining links between social withdrawal subtypes and internalizing problems among Italian primary school children.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2), 268-286. doi:10.1080/17405629.2022.2086118
- Smith, K. A., Barstead, M. G., & Rubin, K. H. (2017). Neuroticism and conscientiousness as moderators of the relation between social withdrawal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6(4), 772-786. doi:10.1007/s10964-016-0594-z
- Teppers, E., Klimstra, T. A., Damme, C. V., Luyckx, K., Vanhalst, J., & Goossens,

- L. (2013). Personality traits, loneliness, and attitudes toward aloneness in adolescenc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30(8), 1045-1063. doi:10.1177/0265407513481445
- Xu, J., Sun, R., Li, Y., Chen, X., Yiu, W. Y. V., Zhou, N., Wang, Y., Luo, S., Shen, J., & Liu, L. (2022). Subtypes of social withdrawal and mental health trajectories during COVID-19 pandemic.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97, 104203. doi:10.1016/j.jrp.2022.104203
- Xu, Y., Farver, J. A. M., Chang, L., Zhang, Z., & Yu, L. (2007). Moving away or fitting in? Understanding shyness in Chinese children. *Merrill-Palmer Quarterly* (1982-), 527-556. doi:10.1353/mpq.2008.0005
- Xu, Y., Farver, J. A. M., & Shin, Y. (2014). Shyness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in South Korean childre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8(2), 147-155. doi:10.1002/per.1938

ABSTRACT

Differences in big five personality traits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by social withdrawal clusters in adolescence

Sul, Dayeon*·Lee, Donghyung**·Kim, Haei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subtypes of social withdrawal based on its underlying motivations (i.e., shyness, unsociability, and regulated) among adolescents through cluster analysis and to examine whether each cluster differs in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Self-report data were collected from 823 high school students, and subjected to cluster analysis, multivariate and un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As a result of the cluster analysis, four clusters were identified and are named as shy group, unsociability group, regulated group, and non-withdrawal group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characteristics.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cross adolescents' social withdrawal clusters. Our findings demonstrate differences in key personality and emotional expression-related traits across social withdrawal subtypes in adolescence, providing a basis for designing differentiated intervention strategies for various forms of social withdrawal.

Key Words: social withdrawal subtypes, shyness, unsociability, regulated withdrawal, cluster analysis, big five personality,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 Department of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doctor's course

** Department of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Department of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master's course